

# 회사는 작은 '인드라망' 신뢰가 최우선

이영숙 (주)코모도호텔 대표이사 회장



CEO, 사찰서 만나다 ②

조계종 중앙신도회-현대불교 공동기획

### ▷“부처님은 나의 판단기준”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성으로 23년째 코모도호텔을 이끌고 있는 이영숙(74·법명 근관) 대표이사 회장이 8월 23일 부산에서 서울 조계사로 먼 발걸음을 했다. 9월 4일 퇴임하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다. 도영 스님은 부산 불교여성개발원장도 맡고있는 그에게 “기업을 육성하듯 미래불교를 키우는 여성불자가 되라”는 의미심장한 법담을 들려줬다.

이영숙 회장은 경영상황이 좋지 않던 1984년 코모도호텔 대표이사를 맡아 특유의 성실함으로 호텔을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또 부산 서라벌호텔과 경주 웰리치조선호텔 인수를 차례로 성사시키면서 여성을 대표하는 CEO로 주목받고 있다.

“인육하고 성실하게 일하다보면 잘 해결된다는 신념으로 호텔을 경영하다보니, ‘이것이 불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도 이기영 박사로부터 불교를 공부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독실한 불자였던 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행동으로 불교를 많이 가르쳐주었다. 전에는 두 어머니가 절에 가끔 데려가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불교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여겼다. 세 식구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23년간 호텔경영을 이끌어온 이영숙 코모도호텔 회장을 조계사에서 만났다.

## 특유의 성실함·결단력으로 회사 정상화 성공 중요한 결정 내릴때는 108배하며 지혜 구해 최선 다하는 직원들엔 칭찬·배려 아끼지 않아

베플고 사찰봉사에 동참하는 두 어머니의 모습은 때로 못마땅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두 어머니가 몸소 행으로 보여준 모습이 불교였음을 알게 됐다. 이는 20여년간 부산불교신년하례와 운전기사봉사의 장소·음식공양을 해 온 원동력이 됐다.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할 순간에는 항상 부처님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묻고 108배를 올립니다.”

하게 여기는 것은 ‘성실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신념은 이회장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성심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칭찬과 격려로 다시 한번 힘을 북돋워 줘야지요. 노력하는 과정은 제쳐두고 좋은 결과만 평가하는 경영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영숙 회장은 경영진과 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함께 호흡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경영이 불자CEO가 추구해야할 경영으로 제시했다. 회사도 사람과 사람, 관계와 관계, 작용과 작용이 얽혀있는 작은 인드라망이기 때문이다.

글=박봉영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이영숙 대표이사는 1933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난 이영숙 회장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코모도호텔 대표이사 회장,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부산 불교여성개발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분단의 경제학 (15) 새 잣대로 세상을 보자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인류는 힘겨운 싸움을 했다. 현대사는 우리 인류가 더 큰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웠다고 한다. 그런데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웠다고 하니 우리는 누구와 싸운 것이고, 우리에게서 지고한 가치들을 찾아가려고 했던 그 악마는 과연 누구였는가.

지긋지긋한 싸움의 와중에서 우리는 싸움의 어느 한 쪽 편에 서기를 강요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본주의의 세상은 분별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나뉘어졌고, 소위 생각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자, 사회주의자로 자기 자신을 자리 매김해야만 했다.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한쪽 눈금의 끝은 자본주의이고, 또 다른 한쪽 끝은 사회주의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그럭저럭 제대로 볼 수 있었고,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 소련을 비롯해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그 잣대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민족과 국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증오와 갈등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을 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나누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가 불가능해졌다.

새뮤얼 헌팅턴은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충돌의 원인을 문명의 충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도 미흡하다. 문명이 다르다는 것이 왜 충돌을 가져와야만 하는가. 다른면 꼭 충돌해야 하는가. 다르면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종교가 다르다는 것,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충돌과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

엇이든가. 이타(利他)이다. 남(他)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삼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대승의 정신은 자신의 해탈만을 목표로 삼는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할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겠다는 정신이다. 사람들은 타인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 대승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잣대로 보면 세상이 더 잘 보인다.

지난 세기에 지구촌을 휩쓸었던 전쟁의 광기도 어쩌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나라만을 사랑했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의 수준 낮은 다툼이었던지도 모른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은 뒤에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개인과 나라가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기 위해 만든 말인지도 모른다.

지구촌이 평화로워지고,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승인(大乘人)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나와 우리만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존경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실망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자본주의, 사회주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나누고 있다. 틀린 잣대로 세상을 재고 그 수척로 사회를 이끌고자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지난 세기에 우리가 싸웠던 악마는 나와 우리만을 생각하는 에고이스트였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우리 마음속의 에고이스트를 물리칠 때 가능하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자신을 자본주의의 신봉자, 혹은 사회주의의 신봉자로 자신을 자리 매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잣대로 세상을 보자. 21세기의 지도자는 자본주의의 신봉자나 사회주의의 신봉자가 아니라 대승인이야 하고, 보다 많은 대승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 한다.

■구경철(경영학 박사)

## 문명이 다르다는 것은 충돌 이유 될 수 없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나눠보는 시각은 잘못 21세기는 이기심 초월한 대승인의 세상돼야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 [mahamall.co.kr](http://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연씨·연근·백련잎가루

연꽃 씨앗은 전분을 비롯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주요 영양소와 비타민, 철분, 칼슘 등이 고루 들어 있는 우수한 영양식품입니다.

연씨가루는 아침식사 대용으로 요거르트·유유 등에 타서 드시거나 일반 선식류와 함께 혼합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연근가루와 백련잎가루도 찌개류, 육류 양념, 부침류, 떡을 만들 때 넣어드시면 맛을 돋구어줍니다.

가격 : 연씨가루 20,000원  
연근·백련잎가루 10,000원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추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였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함께 감탄을 한다. 힘찬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총정사와 대총정사, 한국불교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인 법성(法性) 스님에게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재료만 화지에 2도 판화와 베를린 화사들 사용에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풀음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공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량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인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공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헌정할 주기도 하고, 재정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해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원안불공을 파진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계하고, 정현수놓고, 삼배하면서 가까이 소원기도 한다는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꽃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素彩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은제단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 부자지갑** **오머니반메흠福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장지갑 (남성 여성용화니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끊이지 않아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사위국 거다 립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힘겹고 고통속 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오머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라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일러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공사에서 정안불공과 육원불공을 마친 오머니반메흠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

노쳐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끌어오게 하는 보령과 악귀와 집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승 손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 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말라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오머니반메흠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라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대응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리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